

2020 DKC 고난주간 말씀묵상 & 금식 캠페인

목차

1. “고난주간” 이란?
2. 고난주간 가정예배 가이드

“고난주간”이란? (십자가와 부활까지 가는 1 주일의 여정)

고난주간이란?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명정을 지키고 친히 택정한 하나님 백성을 죄로 부터 속량하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이전까지의 1 주일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 성경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고난주간 동안의 행적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DKC 고난주간 말씀묵상과 금식 캠페인은 무엇인가?

고난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같이 계획적인 말씀묵상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주간 행적을 따라가며 그 은혜를 다 같이 더 깊이 “기쁨으로 함께” 체험하고 십자가 보혈에 대한 더 깊은 깨달음 받고 감사 드리기를 위한 캠페인입니다. 이를 위하여 각 가족 단위로, 혹은 소그룹 별로, 다음의 2 가지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말씀묵상 (가정예배 및 QT 나눔 소그룹)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정해진 시간에 드립니다 (7:00 PM)

- 그날에 정해진 본문을 가족 혹은 소그룹이 함께 차근차근 읽습니다.
- 묵상 가이드 질문에 답하는 것을 통하여 가족원들 혹은 소그룹원들과 함께 말씀묵상을 나눕니다.

2. 금식 (하루 3 끼 중에 미리 정해 놓고 금식을 합니다)

- 말씀묵상을 하는 저녁식사를 권유드리지만, 아침식사 혹은 점심식사에 금식하셔도 괜찮습니다.
- 금식은 단순히 식사를 걸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가까이 나가기 위한 결단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실천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4)

고난주간 가정예배 가이드 (월요일 - 금요일 @ 7pm)

가정예배 예배순서

1. 예배 준비 — 예배 시작 10 분 전에 예배에 집중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몸가짐의 준비를 합니다. (예, 화장실을 다녀오고, 성경을 챙기고, ...)
 -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드라마 시청이나 아이들의 전화기 게임 등은 예배 시작 10 분 전에는 멈추어 주세요.
2. 예배 시간과 장소 — 예배 시간과 장소를 정해 놓으세요. 가능하면 7pm 을 매일 예배 시간으로 지켜주시고, 그것이 힘들면 다른 시간을 미리 정해 놓고 그 시간에 맞추어 정해진 장소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3. 시작기도 — 가능하면 가족원이 하루씩 돌아가면서 시작기도를 인도합니다.
4. 찬양 — 함께 부를 찬양을 미리 준비해 주세요
 - 찬송가를 준비하거나, 가사가 나오는 Youtube 찬양 비디오를 미리 찾아 준비해 놓습니다. 가족원 중에 기타나 피아노로 찬양인도가 가능하면 그렇게 합니다.
5. 성경봉독 — 그날에 정해진 성경본문을 읽습니다.
 - 나눔 — 본문이해를 돕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하고, 서로 은혜가 된 부분을 나눕니다. 가능하면 아이들에게 질문에 답하게 하고, 또 부모는 묵상을 나눕니다
 - 서로 나눔에 대한 감사와 격려를 아끼지 맙시다
 - 가족원 중에 말씀묵상 가운데 답할 수 없는 질문이 생기면 목사님께 이메일 해도 좋습니다 (mickeydkc@gmail.com)
6. 기도 — 다음 3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 후에 한사람이 대표로 마침기도를 드립니다
 1. 각자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줍니다.
 2. 국가와 그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3.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여종찬, 이한근 (이영자 성도 아들 - 신장), 박경아 (간암 4 기)

가정예배 순서 정리

1. 시작기도
2. 찬양 (2 곡)
3. 말씀묵상 – 성경봉독 및 나눔
4. 중보기도 / 마침기도

추천 찬송가

1.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새 540, 통일 219)
2. 구주 예수 의지함이 (새 542, 통일 340)
3. 복의 근원 강림하사(새 & 통일 28)
4.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새 149, 통일 147)
5. 갈보리산 위에 (새 150, 통일 135)
6.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새 305, 통일 405)

추천 복음성가

1. I love You, Lord, and I lift my voice, To worship You, O my soul, rejoice, Take joy My King, in what You hear, may it be a sweet, sweet sound, In Your ear.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들리길
2. Jesus, I love You, I bow down before You, Praises and worship to our King,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화 찬양, 왕께 드리네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

4월 6일 월요일

마태복음 21:18-22 (Read Matthew 21:18-22)

1. 예수님은 어떠한 상태이셨습니까? How was Jesus feeling? (v.18)
2. 예수님께서서는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 위에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What did Jesus see by the wayside? What did he find on it? (v.19)
3.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게 무엇이냐 말씀하시죠? 그 무화과나무는 어떻게 되었나요? What does Jesus say to the fig tree? What happens to the fig tree? (v.19)
4. 예수님께서서는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 가능하다고 하시죠? What does Jesus tell the disciples that people can do if they have faith? (v.21)
5.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어떻게 구할 수 있죠? How do people who have faith ask God for help? (v.22)

예수님은 참 하나님 이시지만, 동시에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의 고통과 수난이 쉬웠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 이셨습니다. Although Jesus is God, we see that Jesus was also human because he got hungry. We must remember that just because Jesus was God, it does not mean that the suffering and the things that Jesus went through was easy for him. Jesus was a real person like you and me.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 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산을 옮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보다 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입니다. When reading this story, it can seem as if Jesus looked at this fig tree and cursed it because he was upset. But, Jesus used the fig tree to teach his disciples a valuable lesson on faith. Jesus tells us that if we have faith, we can move mountains! We may not have seen people move mountains, but we have experienced an even greater miracle! The miracle of Jesus dying on the cross and being raised from the dead!

22 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Jesus teaches us in v.22 that the way we ask God for help is through prayer. So, take a moment to pray and give thanks to God for our faith that we have in him and in Jesus.

4 월 7 일 화요일

요한복음 12:2-11 (Read John 12:2-11)

1.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What did Jesus just do? (v.9)
 2. 마리아는 무엇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었나요? What did Mary wash Jesus' feet with? (v.3)
 3. 가롯 유다는 향유의 값어치를 얼마라고 했습니까? How much did Judas say the ointment was worth? (v.5)
-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a denarii was the money a person would make in one day*
4. 유다는 그 돈을 어디에 쓰려고 했습니까? What was Judas planning to do with the money? (v.6)
 5. 예수님은 그 향유의 목적이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What did Jesus say the ointment was for? (v.7)

예수님은 당신이 살리신 죽었던 나사로와 그의 자매, 마리아와 마르다와 식사를 하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의 발에 붙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습니다. 그 당시 발은 몸의 가장 더러운 부위로 간주되었습니다. 또한 가장 자주 닦아야 하는 부위였습니다. 마리아는 그러한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Jesus has dinner with Lazarus and his two sisters, Mary and Martha, because he has just raised Lazarus from the dead. So, Mary, wanting to worship Jesus, takes probably the most expensive thing she owned and wiped Jesus' feet with her hair. The feet used to be considered the dirtiest part of the body, but also the place that needed to be cleaned the most! Mary uses her hair to do it!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 하십니다. 마리아의 행한 일은 예수님의 장례할 날을 위함이라. 예수님은 당신이 곧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의 고난을 잘 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택정한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가셨습니다. Jesus goes on to mention that this is for his burial. Jesus knew he was going to die soon. It is like knowing you have something coming up that you do not want to do. Jesus knew dying on the cross was going to be really hard, but he keeps going because it means that God would be glorified and that we would be saved!

죽었던 오빠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마리아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도 우리를 죄로부터 구하신 예수님께 경배합시다. Mary experienced something wonderful, when she sees her brother raised from the dead. So she worships Jesus. In the same way, take some time to worship Jesus today, because he has saved us too by taking away our sins.

4월 8일 수요일

누가복음 22:3-6 (Read Luke 22:3-6)

1. 누가 유다에게 들어갔습니까? Who entered into Judas Iscariot? (v.3)
2.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여서 누구와 이야기를 했습니까? Who did Judas talk with to betray Jesus? (v.4)
3. 예수님을 배반한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What did they agree to give Judas for his betrayal? (v.5)
4. 사람들은 왜 기뻐했습니까? Why do you think the people were “glad” in v.5?
5. 예수님은 어느 때에 예수님을 넘겨줄 계획을 하였습니까? When did Judas want to betray Jesus? (v.6)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차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간 동거동락 했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족과도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반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과 같은 제자에게 배반 당하는 것은 여전히 가슴 아픈 일 이었습니다. The passion week was a very sad time for Jesus, because even his disciples treated him bad during the week. The disciples were the people that were with Jesus, every single day for 3 years. In a way the disciples were like Jesus’ family. So for Jesus to have someone who was a part of this kind of “family” betray him, it made him very sad. Even if he knew it was going to happen.

가룟 유다를 보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 그 같이는 안 했을거야!”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은 배반은 안 하더라도, 여전히 예수님을 마음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가 그렇습니다. It is so easy for us to look at Judas and think to ourselves, “I would never do what he did.” We might not have done what Judas did, but there are times where we also treat Jesus badly. We do this when we sin.

오늘 기도 시간에 우리의 죄를 자복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하여 많은 수난을 당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Take a moment to confess your sins in your prayer time today. Jesus suffered so much for you to forgive you of your sins. Remember to thank him with all your heart!

4월 9일 목요일

요한복음 13:1-17 (Read John 13:1-17)

1. 어느 때가 이른 줄 예수님이 아셨나요? What time did Jesus know had come? (v.1)
2.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셨나요? What did Jesus do to his disciples? (v.5)
3.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관계를 맺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 하십니까? What does Jesus need to do for Peter to have a relationship with him? (v.8)
4. 베드로는 어떤 부탁을 드렸습니까? What else did Peter ask Jesus to wash? (v.9)
5.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라 명하십니까? What does Jesus ask the disciples to do? (v.14)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닦았을 때 우리는 이미 당시 발은 가장 더러운 신체 부위로 간주 되었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선생이신 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일은 있을 수 있어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나 두가지 가르침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We learned when Mary washed Jesus' feet that the feet were considered to be the dirtiest part of the body. But Jesus, being their teacher and Lord, washes his disciples' feet. If anything you would expect the disciples to wash Jesus' feet! But, Jesus does this for them for two reasons.

첫째, 베드로에게 말씀 하셨듯 제자들과 상관 있기 위함 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씻기지 않고는 정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더러운 죄를 씻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The first reason is because of what Jesus said to Peter. "If I do not wash you, you have no share with me." Jesus is telling his disciples that they can only be clean if he washes them. It is the very things that Jesus does for us and our sins! It is because he washes away the dirtiest part of us, our sins, that we can be with him and have a relationship with God!

둘째,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라고 본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죄를 씻어 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The second reason is so that we would serve each other in love. We cannot wash away each other's sins, but we can serve people so that we could point to Jesus who can wash away other people's sins!

4 월 10 일 금요일

- * 4 월 10 일 금요일 7PM 에는 Youtube 으로 성금요일 예배 실황 중계가 있습니다.
- * Youtube 성금요일 중계에 동참하시면 금요일 본문을 토요일 저녁에 묵상하셔도 좋습니다.

마태복음 27:45-56 (Read Matthew 27:45-56)

1. 몇 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까? How many hours was there darkness in the land? (v.45)
2. 예수님은 큰 소리로 무엇이라 하셨나요? What did Jesus cry out in a loud voice? (v.46)
3. 예수님의 영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What did Jesus do with his spirit? (v.50)
4. 예수님 죽음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What were the three things that happened after Jesus' death? (v.51-52)
5.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이라 했습니까? What did the Roman centurion say about Jesus? (v.54)

우리 부모님이 힘들어 하시면, 우리도 덩달아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창조물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3). 십자가 죽음에 이르는 고난은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채찍으로 맞았고,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거짓 증언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셨습니다. There are times we feel sad when we see our parents hurt or when our parents are sad. In the same way we see that all of the earth was crying out because its Creator died (John 1:3). All the things that Jesus went through leading up to his death were very difficult. He was beaten. People lied about him and treated him unfairly. He was even made fun of and bullied by the people he came to save.

그러나 우리는 이 날을 Good Friday (성금요일) 이라 부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인데 무엇이 Good 합니까? 예수님의 죽음 덕분에 우리 죄값은 속량 되었기에 그러합니다. 우리를 대속 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죽음 없이는 하나도 불가능 합니다. But we remember this day and we call it "Good Friday." Why is it Good Friday when it is the day our Jesus died? It is good because what Jesus' death means to us. It means our sins are paid for on the cross. It means he died in our place. It means he made a way for us to go to heaven. Jesus' death is the only way all of these things could have happened.

우리에게는 더 없이 좋은 날이지만, 예수님은 진정으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기도 합시다. Even though we remember this day as Good Friday, Jesus truly had a hard and difficult time that day. Jesus went through all the pain and suffering for us; in our place. So let us take some time to pray and meditate on the price that Jesus paid to save us.